

제14회 서암전통문화대상 시상식...김선제 아쟁 명인 수상

금속공작기계 전문기업인 화천그룹의 서암문화재단(이사장 권영열)이 후원하는 제14회 서암전통문화대상 시상식이 10일 광주라마다플라자 충장호텔에서 열렸다. (사진)

이날 시상식은 축하공연 '김병섭류 설장구 놀이' (김수연·김한솔)와 '박록주제 흥보가 중 박타령' (소리이서희, 고수 도경한)을 시작으로 경과보고, 임재원(전 국립국악원장) 심사위원장의 심사평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권영열 이사장은 올해 수상자인 김선제 아쟁 명인에게 상금 3000만원과 상장을 수여하고 격려했다.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상임단원으로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39호 아쟁산조 이수자인 김 명인은 올해 35회 대국국악제 국악영연대회 명인부 종합대상(대통령상) 등을 수상했다. 또 지금까지 개인독주회를 10여 차례 개최했으며 아쟁협주곡 '금당' 다수의 작품을 작곡했다.

김 명인은 수상 축하 공연에 나서 '박종선류 아쟁 산조', 현악 삼중주 '기원'을 제9회 서암전통문화대상 수상자인 유소희(거문고), 이왕재(장구), 이정숙(가야금)씨와 함께 연주했다.



김선제 명인은 "의미있는 큰 상을 받고 나니 아쟁과 함께 한 37년의 세월 동안 연주, 창작, 강의 등에 힘써 왔던 시간이 떠오른다"며 "자극심과 함께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우리 국악을 알리고 발전시키는 데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암전통문화대상은 호남지역에서 한국화, 판소리, 전통무용, 전통공예, 전통기악 등 전통문화 5개 부문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중견 예술인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상이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초록우산 전남본부, 양육시설 3곳과 협약



초록우산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유성)는 10일 전남도 양육시설 3곳과 '보호대상 아동 놀 권리 증진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이날 초록우산은 여수아이파트, 삼해원, 나주금성원과 4차 간 업무협약을 맺고 전남 지역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약속했다. 이번 협약으로 특별한 보호와 지원이 필요

한 보호대상아동들에게 놀이매개체인 드론을 활용한 다양한 놀이프로그램이 제공되며, 꿈과 재능개발 탐색,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이 진행된다.

초록우산 전남지역본부는 2023년부터 전남지역 8개 파트너 기관을 발굴하고 현재까지 1억 1800만 원의 자원을 연계하고 있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광산구도시재생공동체센터, 전남대와 리터러시 교육 협약



광산구도시재생공동체센터(센터장 이민철)는 지난 9일 전남대 문헌정보학과와 함께 광산구 작은도서관 4곳의 리터러시 역량 강화를 추진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이번 협약을 통해 전남대 문헌정보학과와 비아동 까망이작은도서관, 첨단2동 구름다리작은도서관, 신장동

신촌원인시그림책마을 작은도서관, 수완동 도깨비어린이도서관, 광산구도시재생공동체센터는 '가족과 함께 독서하는 별밤캠ป์', '더웃대감이 만드는 우리 마을 아카이브', '청소년 비경쟁 독서토론', '아동을 위한 VR 실감형 독서' 등 생애주기별 리터러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공동 추진하게 된다. /양재희 기자 heestory@

이현승 원장 아너소사이어티 가입



이현승(사진) 유로진남성클리닉광주점 원장이 10일 사랑의열매 개인고액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Honor Society) 광주 177호 회원으로 가입했다.

광주 사랑의열매 2층 나눔문화관에서 진행된 가입식에는 박철홍 광주 사랑의열매 회장, 김동기 광주 아너 소사이어티 대표, 이현승 유로진남성클리닉광주점 원장과 가족, 박홍철 광주 사랑의열매 사무처장 및 관계자가 함께 했다.

이현승 원장은 "평소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과 소통하며 기부에 대한 생각을 해왔다"며 "이번 아너 소사이어티 가입을 통해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면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기여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한편, 아너 소사이어티는 1억 원 이상 기부 또는 5년 이내 기부를 약정한 경우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기호석 광주향교 제32대 전교 취임식

기호석(75·사진) 광주향교 제 32대 전교가 10일 취임했다. 임기는 3년.

광주향교는 10일 오전 유림회관에서 제 31대 최흥열 전교와 제 32대 기호석 전교의 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안규춘 시본부 회장과 향교 원로 지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기호석 전교는 광주고등학교와 전남대학교 농화학과를 졸업하고 (주)코리콤 이연씨를 설립했다. (주)남양호안 대표이사인 기호석은 광주향교 장의와 감사로 거쳐 광주향교 재단 이사를 역임했다. 지난해에는 성군관



유도회 광주시본부 수석회장을 맡았다. 기호석은 이날 열린 취임식에서 "530여 년전 우리 선현들께서 광주향교를 세웠지만 일제 강점기 이후 권위가 무너져 전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광주향교의 많은 유림들이 유학에 내재한 가치추진을 위해 하나로 뭉치고 협조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자"고 말했다. /양재희 기자 heestory@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TV프로그램 11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4 columns: Channel (KBS1, KBS2, MBC, KBC/SBS), Program Name, Broadcast Time, and Description.

EBS1

Table with 3 columns: Broadcast Time, Program Name, and Description.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7월 11일(음6월 6일 丙子) ☎ 010-9790-8237

36년생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48년생 중대한 구도이니 정황에 맞게 도모해야 한다. 60년생 소강상태를 벗어나면서 완만한 호전의 기미가 보인다. 72년생 의도는 좋으나 때와 장소를 가려야만 한다. 84년생 희망의 빛이 점점 가까이 비추어오는 형국이다. 96년생 어떠한 기준이나에 따라서 판도가 달라진다. 행운의 숫자 : 39, 89